

국가·국제기구 농업 브리프

1

미국



신세계나사벌레 발생 대응을 위한 가축 이동통제 및 방역 강화

미국 농무부(2026.6.3.)

- 미국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은 텍사스주 자발라 카운티(Zavala County)의 송아지에서 신세계나사벌레(New World Screwworm, NWS)¹⁾가 확인됨에 따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방역조치를 강화함.
- 미국 농무부와 텍사스주 당국은 발생지 반경 20km에 감염구역을 설정하여 가축 이동을 제한하고 예찰을 실시하는 한편, 불임충 방사(sterile insect release)를 확대함.
 - 구체적으로 항공 방식을 통해 주(state)당 약 400만 마리의 불임 개체를 방사하던 것에 더하여 발생지역 내 지상 방사시설도 운영하기 시작함.
- 이후 텍사스에서 추가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예찰과 방역조치를 추가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가축 이동관리와 불임충 방사를 병행하는 지역 단위 방역체계가 강화되고 있음.

1) 신세계나사벌레는 유충이 가축 등 온혈동물의 상처 부위에 침입하여 살아 있는 조직을 섭식하는 해충으로, 가축 생산과 동물 건강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



농업보조금 지급한도 및 자격 기준 확대

미국 농무부(2026.6.3.)

- 미국 농무부(USDA) 농가지원청(FSA)은 농업 프로그램의 지급한도 및 자격(payment limitation)과 지급자격(payment eligibility) 기준을 확대함.
 - 구체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책임회사(LLC), S법인(S-Corporation) 및 이와 유사한 법인을 '통과기업(pass-through entity)'으로 인정하여, 농업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을 기준으로 프로그램 지급자격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함.²⁾
- 즉, 농업경영체의 법인 형태와 농업 관련 소득원의 다양화를 보다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농가지원 프로그램의 지급기준이 조정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음.
 - 농업위험보장제도(ARC)와 가격손실보상제도(PLC)의 지급한도 기준액은 2025 작물연도부터 기존 12만 5,000달러에서 15만 5,0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제 지급한도는 2025년 16만 달러, 2026년 16만 4,000달러로 조정됨.
 - 또한 보전·재해지원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평균조정총소득(AGI) 기준과 관련하여 농촌관광, 소비자 직접판매, 일부 농기계 판매소득 등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도록 범위를 확대함.³⁾



식품 이력추적 규정 대응 점검 결과 발표

미국 식품의약국(2026.6.10.)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식품 이력추적 규정(Food Traceability Rule, FTR)에 대한 업계의 준비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2026년 3~4월 실시한 모의훈련 결과와 관련 FAQ를 발표함.

2) 기존에는 LLC나 S법인 형태의 농업경영체에 하나의 지급한도가 적용되었으나, 개편 이후에는 파트너십·합작사업 등과 유사한 방식으로 지급한도를 적용할 수 있게 됨.

3) 농업위험보장제도(ARC)와 가격손실보상제도(PLC)의 지급한도 기준액은 2025 작물연도부터 기존 12만 5,000달러에서 15만 5,000달러로 상향되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제 지급한도는 2025년 16만 달러, 2026년 16만 4,000달러로 조정됨.

- 식품 이력추적 규정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제204조에 따라 이력추적 대상 식품을 제조·가공·포장·보관하는 사업자가 공급망 주요 단계별로 추가적인 정보를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임.
- 모의훈련에서는 FDA가 특정 제품에 대한 이력추적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기업이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24시간 이내에 전자적으로 정렬 가능한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지를 점검함.
 - 대부분의 참여기업은 기한 내 자료를 제출했으나, 일부 데이터 항목의 관리와 공급망 참여자 간 정보 연계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미국 식품의약국은 실제 규정 이행을 위해 공급망 참여자 간 사전 협력과 이력추적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평가함. 이에 따라 식품업체의 개별적인 기록관리뿐 아니라 생산·가공·유통단계를 연결하는 공급망 차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음.



미국·멕시코, USMCA 공동검토 협상에서 농업 분야 논의 착수

미국 무역대표부(2026.6.18.; 2026.7.1.)

- 미국과 멕시코는 6월 15~17일 워싱턴 D.C.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공동검토와 관련한 제2차 양자협상을 개최하고 농업을 포함한 주요 분야에 대한 논의를 시작함.
 - 양측은 일부 무역 품목의 원산지 규정과 경제안보 문제에 관한 협상을 진전시키는 한편, 농업·노동·환경 분야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진행함. 또한 주요 관심 품목인 철강·알루미늄 및 자동차 교역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루어짐.
-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는 7월 1일 USMCA 자유무역위원회를 개최하여 협정 운영상황을 공동검토함. 미국은 현행 협정의 갱신 자체에는 동의하지 않았으나 USMCA의 효력을 유지한 채 협정 관련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지속하기로 함.
- 미국과 멕시코는 7월 제3차 양자협상에서도 농업을 포함한 관련 분야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여, 농업 분야의 구체적인 협상 쟁점은 향후 공동검토 과정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임.



농업 재해지원 및 농산물 용자 프로그램 확대

미국 농무부(2026.7.8.)

- 미국 농무부는 「Working Families Tax Cuts Act」에 따라 가축 사육자와 과수·묘목 생산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해지원제도와 농산물 마케팅 지원 용자(Marketing Assistance Loan, MAL) 제도를 개편함.
 - 주요 대상은 가축·꿀벌·양식어류 긴급지원 프로그램(ELAP), 가축사료 재해프로그램(LFP), 가축손실 보상프로그램(LIP), 수목지원 프로그램(TAP) 등임.
- 가축사료 재해프로그램은 심각한 가뭄(D2)에 따른 지원 개시 기준을 기존 연속 8주에서 4주로 단축함. 가축손실 보상프로그램에서는 보호종 및 멸종위기 동물의 공격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률을 시장가치의 75%에서 100%로 확대함.
 - 한편, 수목지원 프로그램에서는 피해 산정 시 정상 폐사율 15%를 제외하던 기준을 폐지하고 재식재·복구 지원을 확대함.
- 또한 2026년부터 농산물 마케팅 지원 용자의 단가를 인상하고 면화 관련 저장비용과 가격산정 방식을 조정함.
 - 가령, 설탕 프로그램은 2031년까지 연장하고 원당과 사탕무당의 용자 단가도 인상하여 기상재해에 대한 직접지원과 농산물 가격 및 금융 지원을 함께 확대함.



미국, 브라질 일부 제품에 무역법 301조 추가관세 부과

미국 무역대표부(2026.7.15.)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브라질산 일부 상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부과함.
 - 본 조치는 2025년 7월 개시한 브라질의 디지털 무역, 관세정책, 지식재산권, 에탄올 시장접근 및 불법 산림훼손 등과 관련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됨.
- 미국 무역대표부는 2026년 6월 관련 조치가 미국 통상에 부담 또는 제한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뒤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7월 최종 조치를 결정함. 농업 분야에서는 브라질의 미국산 에탄올 시장접근 문제와 불법적으로 훼손된 토지에서의 농산물 생산 문제가 주요 조사대상에 포함됨.

- 이번 조치는 전통적인 관세·시장접근 문제뿐만 아니라 환경·생산과정과 관련한 정책까지 무역법 301조의 조사 및 관세조치대상에 포함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조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금지 관련 60개 경제권에 무역법 301조 관세 조치

미국 무역대표부(2026.7.23.)

-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집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1974년 무역법」 제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를 발표함.
 - USTR는 2026년 3월 조사를 개시한 뒤 관련 정책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공청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조치를 결정함.
- 강제노동 생산품에 대한 수입금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상호무역협정을 통해 관련 제도 도입을 약속한 국가에는 10%의 관세율을 적용함.
 - 구체적으로 EU·대만·일본·한국·스위스의 일부 비면제 품목에는 기존 최혜국(MFN) 관세율을 고려하여 10% 또는 12.5%를 적용하며, 그 밖의 조사대상 경제권에는 12.5%를 적용함.
 - 다만 미국 내 공급이 부족한 원료나 경제 전반에 상당한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품목들은 예외를 인정함.
- 이번 조치는 강제노동 규제가 수입금지뿐만 아니라 추가관세 등 통상조치와 연계되고 있어, 농식품을 포함한 수출기업에서도 원료조달과 생산단계의 공급망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미국 FDA, 신선편이 농식품 식품안전 관리지침 확정

미국 식품의약국(2026.8.11.)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즉석에서 섭취가 가능한 신선편이 농식품⁴⁾ 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안전 관리지침을 최종적으로 확정함.
 - 이번 지침은 식품안전현대화법(FSMA)의 현행 우수제조관리기준과 위해요소 분석·위해기반 예방관리(PCHF) 규칙을 신선편이 농식품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기존 2008년 지침을 대체함.
- 미국 식품의약국은 양상추, 멜론, 양파, 당근 등을 중심으로 생산·운송·가공·유통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예방관리 방법과 사례를 제시함.
- 따라서 신선편이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는 원료 입고부터 가공·보관·유통에 이르는 단계별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예방관리 조치를 적용하는 등 공급망 전반의 위생관리 요구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미국, 학교급식 개선 및 지역 농산물 공급 연계 확대

미국 농무부·보건복지부(2026.8.24.)

- 미국 농무부(USDA)와 보건복지부(HHS)는 학교급식의 영양 수준 개선과 함께 지역 농업인·축산농가에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의 품질을 개선하고 지역 농산물 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Harvest to Hallways' 계획을 발표함.
- 미국 농무부는 'Farm to School' 사업에 최대 2,5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여 학교가 지역에서 생산된 농식품을 급식에 활용하고 지역 생산자와 급식기관 간 공급연계를 확대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학교가 신선 및 지역 농산물을 보다 많이 조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약 2,000만 달러 규모의 학교급식 장비 지원도 추진함.

4) 신선편이 농산물은 절단·세척·박파·분쇄 등의 과정을 거친 뒤 별도의 가열이나 살균 없이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과일과 채소를 의미함.

- 미국 보건복지부는 학교급식의 영양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에 3,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이에 따라 학교급식 정책을 영양 개선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 농산물 조달과 생산자 판로 확대까지 연계하는 지역 먹거리 공급체계 강화가 함께 추진되고 있음.



식물 번식재 생산·유통 규정 전면 개편 잠정 합의

유럽연합 이사회(2026.6.15.)

- 유럽연합 이사회와 유럽의회는 식물 번식재(Plant Reproductive Material, PRM)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하는 데 잠정 합의함.
 - 이번 개편은 일부 규정이 1960년대 이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온 기존 법체계를 하나의 통합 규정으로 정비하는 것임, EU 시장에서 유통되는 종자·묘목 등 식물 번식재의 품질을 확보하면서 농업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대응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새로운 규정은 디지털 도구와 생체분자기술 등 새로운 기술의 활용을 허용하고 행정절차와 문서를 간소화하는 한편, 기후변화와 병해충 등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 품종이 보다 신속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가령, 보존품종, 지역 적응품종 및 유기농업용 식물 번식재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칙을 적용하고, 식물위생 및 공식통제 관련 EU 규정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임.
 - 또한 농업용 식물(잔디 제외)과 감자·포도에 대해서는 지속가능한 재배 및 이용가치(Value for Sustainable Cultivation and Use, VSCU) 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예정임.
- 최종 규정은 이사회와 의회의 공식 승인을 거쳐 채택된 이후 4년의 준비기간을 두고 적용될 예정이며, 식물 번식재 관리체계를 통합하면서 품종의 품질관리와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활용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음.



농식품 공급망에서 농업인의 협상력 강화 규정 최종 채택

유럽연합 이사회(2026.6.29.)

- 유럽연합 이사회는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등 구매자에 대한 농업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산물 공동시장조직(Common Market Organisation, CMO)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최종 채택함.
 - 이번 개정은 농식품 공급망에서 농업인이 생산한 가치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관계와 생산자조직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 본 개정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음.
 - 농업인과 구매자 간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약 재검토 조항을 도입함.
 - 생산자조직 인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동협상 등 집단적 활동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활동에 공동농업정책(CAP)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개정된 본 규정에서는 농업인의 거래상 지위 강화뿐 아니라 농식품의 표시와 마케팅 과정에서 생산방식과 제품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함께 강화됨.
 - 구체적으로 '공정(fair)', '짧은 공급망(short supply chain)'과 같은 자발적 마케팅 용어의 사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육류(meat)'라는 명칭은 동물에서 유래한 제품에 사용하도록 보호함.



비료 가격 상승 대응 농가지원 제도 확대

유럽연합 이사회(2026.7.13.);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6.7.17.)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중동지역 위기에 따른 에너지와 비료 가격 상승으로 농업인의 생산비와 유동성 부담이 확대됨에 따라 공동농업정책(CAP)을 활용한 긴급지원 조치를 도입함.
 - 유럽연합 이사회는 7월 13일 CAP 전략계획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회원국이 비료

등 투입재 가격 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은 농업인에게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편에 따라 회원국은 농촌개발 분야에 새로운 긴급 유동성 지원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유럽농촌개발농업기금(EAFRD)을 통해 최대 65%까지 공동재원을 조달할 수 있음.
 - 회원국은 여기에 EU 지원액의 최대 200%에 해당하는 자국 재원을 추가할 수 있으며, 농업인의 단기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지불금을 조기에 지급하거나 2027년 직접지불 예산 배분을 국내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도 있음.
- 이어 EU 회원국은 투입재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CAP 내 유동성 지원과 농업예비비를 병행 활용하는 방식으로 농가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7월 17일 농업예비비를 활용하여 총 5억 4,000만 유로를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집행위원회 방안을 승인함.
 - 그 결과, 프랑스·폴란드·독일·스페인·이탈리아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금액이 배정되었으며, 각 회원국은 비료와 에너지 비용 증가로 피해가 큰 농업인을 대상으로 2027년 2월 28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임.



EU의 고단백 사료의 수입의존도 74% 수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6.7.7.)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EU의 식품·사료용 단백질 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저단백 사료에서는 높은 자급률을 보인 반면, 대두박 등 고단백 사료는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밝힘.⁵⁾
- 유럽에서 생산·소비되는 곡물, 유지종자 및 두류의 조단백질 가운데 약 70%는 축산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주요 고단백 작물은 유채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대두와 대두박 등 고단백 사료원료의 높은 수입의존도가 EU 단백질 공급망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됨.
- 이에 집행위원회는 식물성 단백질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사료원료의 다변화와 역내 단백질

5) EU에서 이용되는 고단백 사료용 유지종자와 단백질 작물의 약 74%가 수입을 통해 공급되는 것으로 나타남.

질 작물 생산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축종별 사료전략과 식량체계 전반의 생산·환경 간 상충관계에 관한 연구도 함께 추진하고 있어, 향후 EU의 사료 공급망 안정과 역내 생산 확대를 위한 정책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임.



2026년 상반기 농식품 무역수지 흑자 239억 유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2026.8.28.)

- 2026년 상반기 EU 농식품 수출액은 1,172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 감소하고 수입액은 934억 유로로 4% 감소함. 농식품 무역수지 흑자는 239억 유로로 전년 동기보다 14억 유로 증가함.
 - 국가별로는 이집트에 대한 수출이 밀 수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하였으며, 우크라이나와 인도에 대한 수출도 각각 12%, 26% 증가함.
 - 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해상운송 차질 등의 영향으로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수출은 25% 감소함.
- 품목별로는 주류 및 리큐어 수출액이 전년 동기보다 10% 증가한 반면, 커피·차·코코아·향신료 수출은 16% 감소함.
 - 수입에서는 브라질산 대두 수입 증가 등에 따라 브라질로부터의 수입액이 5% 증가하고 과일·견과류 수입도 3% 증가한 반면, 곡물 수입액은 15% 감소함.
 - 특히, 최근 2년간 EU 역내 생산이 부진했던 해바라기씨의 수입량은 전년 동기의 약 두 배로 증가함, 품목별 역내 생산여건과 물류 차질이 농식품 교역구조에 상이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시아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안 시행**

중국 해관총서;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3.25)

- 중국 해관총서는 개정된 「해관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을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함.
 - 개정 규정은 기존 해관총서령 제248호를 대체하는 제280호에 따른 것으로,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생산업체의 등록·갱신 및 수입신고 절차를 조정함.
 - 수출국 정부의 공식 추천을 통해 등록해야 하는 식품은 육류·육제품, 알·알가공품, 식용유지, 곡물, 견과·종실류, 건조과일, 유제품, 수산물 등 17개 품목군으로 조정됨.
 - 육류·육제품, 케이싱,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의 경우 등록기간 자동연장 대상에서 제외됨.
- 중국 시장에서 소비되거나 식품 가공원료로 이용되는 수입식품은 수입 신고 시 해당 해외생산업체의 중국 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이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는 경우 중국 해관이 수입신고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중국으로 농식품을 수출하는 해외 업체는 품목별 등록 방식 및 등록기간, 수입신고 단계의 등록번호 관리 등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음.

**(일본)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2026’ 발표**

일본 농림수산성(2026.7.14.)

- 일본 농림수산성은 식량안보 강화와 농림수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중점과제를 담은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2026」을 발표함.

- 해당 전략은 「식료·농업·농촌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농림수산 분야의 연구개발 방향과 기술혁신 과제를 제시하는 연례 전략임.
- 스마트농업 분야에서는 기술의 저비용화와 소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품종개발 분야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고온 내성 및 다수확 품종 개발을 산관학 협력으로 확대할 계획임.
- 한편, 식물공장 등 푸드테크 분야에서는 첨단 바이오기술을 활용한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새로운 시장 창출을 지원함.
- 또한 농림수산 분야 연구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 대학과의 기초 연구 협력을 확대할 예정임.
- 스마트농업 등 첨단기술의 현장 보급을 위한 기술지도와 기술목록도 정비할 계획으로, 연구개발부터 현장 실용화까지 연계하는 농업혁신 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함.



(일본) 쌀 유통 실태 파악 위한 사업자 신고·정기보고제도 확대

일본 농림수산성(2026.7.28.)

- 일본은 「주요 식량의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쌀 유통 실태에 대한 정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와 유통·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새로운 신고 및 정기보고 제도를 도입함.
- 새 제도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생산자뿐만 아니라 집하업자, 도매업자, 소매업자, 가공업자, 중식·외식업자 등을 ‘쌀 등 취급사업자’로 관리하고 사업자 신고를 의무화함.
- 기존 쌀 출하·판매 사업자의 신고사항도 확대되어 기존 신고 사업자 역시 변경된 제도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접수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임.
- 이번 법 개정에는 민간비축제도 도입과 정기보고제도 신설, 기존 생산조정방침 및 쌀가격형성센터 관련 규정 폐지 등도 포함됨.
- 이를 통해 일본 정부가 생산단계뿐만 아니라 유통·가공·외식 등 쌀 공급망 전반의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수급·가격 관리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일본) 2026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액 역대 최고치 기록

일본 농림수산업성(2026.8.4.)

- 2026년 1~6월 일본의 농식품 수출액은 8,977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880억 엔) 증가하여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부문별 수출액은 농산물아 5,674억 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하였으며, 임산물은 394억 엔으로 6.2%, 수산물은 2,384억 엔으로 19.5%, 소액화물⁶⁾은 526억 엔으로 5.0% 증가함.
 - 주요 수출대상국(지역)은 미국, 홍콩, 중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미국과 홍콩 등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도 전년 동기보다 증가함.
- 일본 정부는 2030년 농식품 수출액 5조 엔 달성을 목표로 수출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2026년 상반기 실적은 이러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요 수출시장을 중심으로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줌.



(일본) 2025년도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 37%로 하락

일본 농림수산업성(2026.8.7.)

- 일본의 2025년도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은 37%로 전년도보다 1%p 하락한 반면, 생산액 기준 식량자급률은 전년도보다 2%p 상승한 66%를 기록함.⁷⁾
- 칼로리 기준 식량자급률 하락에는 국산 공급열량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쌀 소비량 감소와 민간 재고 증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남.
 - 반면 생산액 기준 식량자급률은 국내 식품 생산액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함.
- 이에 따라 생산량과 공급열량을 중심으로 산정되는 자급률과 생산액 기준 자급률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나타나 일본의 식량자급 상황을 평가할 때 공급량뿐 아니라 국내 생산액과 소비구조의 변화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6) 우편·택배·소규모 거래 등으로 수출된 1품목당 20만 엔 이하의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액을 따로 집계한 것임.

7) 섭취열량 기준 식량자급률은 1%p 하락한 45%로 나타남.



(중국) 고형음료 국가표준 개정 및 2027년 8월 시행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2026.7.2.);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8.13.)

- 중국은 기존 「고형음료」 국가표준(GB/T 29602-2013)을 대체하는 「고형음료 품질 요구사항」(GB/T 29602-2026)을 발표하고, 새로운 표준을 2027년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임.
 - 개정 표준은 고형음료의 정의와 제품분류, 기술요건, 시험방법, 표시·포장·운송 및 보관 기준 등을 수정함.
 - 특히 기존 각 품목에 존재했던 ‘기타’ 분류를 삭제하고 논데어리 크리머와 유산균 고형음료를 별도의 품목으로 구분하는 한편, 기존 ‘특수용도 고형음료’ 분류도 삭제함.
- 이에 따라 중국 내 고형음료의 제품 분류와 품질관리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며, 관련 제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새로운 제품분류와 표시·품질요건이 실제 제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시행 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수입검사·이력추적 관리 강화 내용의 식품안전법 전면개정 추진

베트남 보건부(2026.7.27.);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8.17.)

- 베트남은 「식품안전법」 전면 개정 초안을 마련하고 식품 생산·유통·수출입, 제품 공표, 식품안전검사, 이력추적 및 회수 등 공급망 전반의 관리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함.
 - 현재 공개된 내용은 2026년 7월 27일 마련된 제1차 개정 초안으로 향후 심의과정에 서 변경될 수 있음.
- 개정안은 식품의 위험도와 특성에 따라 제품공표 등록, 적용표준 공표, 공표 면제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함.
 - 일반 포장 가공식품과 식품첨가물 등은 적용표준 공표 대상에 해당하며 고위험 식품은 제품공표 등록 대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함.
- 수입식품은 원칙적으로 수입 전에 관련 공표절차를 완료하고,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동일한 생산·선적 단위로 구분되는 각 수입 로트별로 식품안전 국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

- 이중 검사방식의 경우 위험 수준에 따라 강화·일반·간소화 검사로 구분하고, 제품 또는 로트별 식별코드와 바코드·QR코드 등을 활용한 이력추적 체계를 확대할 계획임.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베트남 수출식품에 대한 사전 등록·검사와 공급망 이력관리 요구가 전반적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취득 이후 사후관리 규정 마련 추진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2026.7.23.);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8.14.)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은 할랄인증 취득 이후의 사후관리⁸⁾ 체계를 규정하는 제도 초안을 마련하여 WTO 기술무역장벽(TBT) 위원회에 통보함.
 - 이번 초안은 인증을 취득한 사업자가 할랄제품보장시스템(SJPH)을 지속적으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초안에는 사업자의 위험 수준에 따른 위험기반 평가, 정기보고 및 행정제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
 - 구체적으로 인증을 취득한 이후에도 원료와 생산공정, 제품이 할랄 관련 요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하도록 관리하고, 사업자의 위험 수준에 따라 감독 강도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할랄 관리체계는 인증 취득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인증 이후의 지속적인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8) 해당 초안에 대한 국제적 의견수렴은 2026년 9월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임.

4

국제기구⁹⁾

세계 기아 인구 3년 연속 감소에도 건강식 비용은 지속 상승 추세

FAO·IFAD·UNICEF·WFP·WHO(2026.7.21.)

- 세계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니세프(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및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 발간한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6」에 따르면, 2025년 세계 기아 인구는 약 6억 4,5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7.8%를 차지함.
 - 이는 2024년보다 약 1,400만 명, 최근 고점이었던 2022년보다 약 4,300만 명 감소한 수준임.
- 중등도 또는 심각한 식량불안을 경험한 인구는 2025년 약 21억 명으로 세계 인구의 25.8%를 차지하여 2024년의 27.1%보다 감소함.
 - 다만, 지역별 격차가 크게 나타나 아프리카에서는 인구의 56.6%가 중등도 또는 심각한 식량불안을 경험한 반면, 아시아는 20.3%, 중남미·카리브는 22.9%, 북미·유럽은 8.7%로 나타남.
- 2025년 건강한 식단의 세계 평균 비용은 실질구매력(PPP)기준 1인당 하루 4.28 PPP 달러로 2021년 3.44달러, 2017년 2.94달러보다 상승함. 건강한 식단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구는 2021년 29억 7,000만 명에서 2025년 26억 9,000만 명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세계 인구의 32.7%를 차지함.
- 또한 농장 출하 이후 가공·물류·도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소비자가 지급하는 식품가격의 약 70~75%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식량안보 개선을 위해 식품 공급망 전반의 비용과 접근성 문제를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나타남.

9) 본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제38차 아태지역총회 회의록 제공 및 내용 검토 협조를 받아 작성하였음.



UNCTAD, 2026년 상반기 세계 상품무역 12.5% 증가

유엔무역개발회의(2026.7.21.); 세계무역기구(2026.7.31.)

-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세계 상품무역액은 약 13조 7,00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하였으며, 서비스 무역도 10.5% 증가함.¹⁰⁾
- 다만, 무역액 증가의 상당 부분은 실제 교역량 증가보다 가격 상승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특히, 최근 호르무즈 해협의 해운 차질과 에너지 공급 우려로 에너지·운송·물류·생산비가 상승하면서 세계 교역상품 가격은 2026년 1분기 약 3.6%, 2분기에는 약 5%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
 - 지역별로는 동아시아가 1분기 세계 교역 증가를 주도하였으며, 특히 중국과 한국의 수출입 증가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남.
- WTO 자료에서도 2026년 1분기 세계 상품무역 물량은 전분기 대비 1.9%,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하였으며, 상품무역액은 전년 동기보다 11% 증가함.
 - 이중 AI 관련 전자부품의 교역 증가가 세계 상품무역 확대에 크게 기여한 가운데, 중동지역 분쟁과 물류 차질 등으로 품목·지역별 교역여건의 차별화가 확대되고 있음.



WTO, 농식품 관련 SPS 무역현안 역대 최대 수준 논의

세계무역기구(2026.6.26.)

- WTO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위원회는 6월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제기한 특정 무역 현안(Specific Trade Concerns, STCs) 79건을 검토함.
 - 이는 SPS 위원회 회의 기준 역대 가장 많은 수준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새롭게 제기된 현안임.
- 해당 현안의 주요 내용은 식물성 제품의 광유계 방향족탄화수소(MOAH) 기준, 향신료

10) 상품과 서비스를 합한 세계 교역액은 전년보다 약 2조 달러 확대되어 명목금액 기준으로 높은 증가세를 나타냄.

와 배추 등에 대한 농약 최대잔류허용기준, 주류의 에틸카바메이트 관리기준, 가금육과 젤라틴 제품의 시장접근 승인 지연, 새우 수입중단,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수입제한 등이 포함됨.

- 즉, 식품안전과 동식물 위생규제가 농식품 교역에서 지속적으로 중요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줌.
- 아울러 SPS 조치의 투명성 제고와 개발도상국·최빈개도국의 SPS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도 논의됨.
- 따라서 향후 농식품 수출에서는 관세조건뿐 아니라 국가별 위생·검역기준과 규제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WTO 농업협상, 국내보조·시장접근·식품 수출제한 관련 쟁점 논의 지속

세계무역기구(2026.7.9.)

- WTO 회원국들은 제14차 각료회의 이후 농업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였으나, 주요 농업통상 쟁점에 대한 회원국 간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주요 쟁점은 농업부문의 무역왜곡 국내보조 감축, 농산물 시장접근 개선, 식품에 대한 수출제한 등임.
- 일부 개발도상국은 식량안보와 농촌의 생계 문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WTO 농업협정 내 기존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 회원국은 특정 분야를 우선할 경우 전체 농업협상의 진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모든 미해결 쟁점을 병행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함.
- 회원국들은 기술적 논의와 주제별 회의, 근거에 기반한 협의 등을 통해 협상 여건을 조성할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향후 WTO 농업협상에서도 국내보조·시장접근·수출제한과 식량안보 간 조정이 주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임.



국제 농식품·원자재 가격, 7~8월 상승 압력 확대

유엔식량농업기구(2026.7.3.; 8.7.; 9.4.); 세계은행(2026.8.6.)

- 2026년 국제 농식품·원자재 가격은 품목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여름철 들어 일부 식품과 원자재를 중심으로 상승 압력이 확대되었으며, 고온 등 기상이변에 따른 공급 우려와 에너지 가격 변화, 중동지역 분쟁 및 흑해지역의 불확실성 등이 국제 식품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
 -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6월 130.3포인트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으나, 7월 131.1포인트, 8월 133.3포인트로 두 달 연속 상승함.
 - 7월의 경우 FAO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보다 0.6% 상승하였으며, 특히 곡물가격지수가 3.4% 상승함.
 - 8월에는 전체 지수가 전월 대비 1.9% 상승하면서 모든 품목군의 가격지수가 전월보다 상승했으며, 곡물가격지수는 116.3포인트로 2024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함. 유지류가격지수도 196.9포인트로 3개월 연속 상승하여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
- 세계은행 원자재 가격자료(Pink Sheet)에서도 7월 농산물 가격지수가 전월 대비 2.6% 상승함.
 - 식품가격과 비료가격이 각각 0.3%, 4.3% 하락했지만 음료 원자재 가격이 17.4% 상승하여 전체 농산물 가격지수 상승을 주도함.
 - 같은 기간 에너지가격지수는 1.1% 하락했는데 석탄과 원유 가격도 각각 4.8%, 2.2% 하락한 반면,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19.1% 상승함.
 - 이에 따라 최근 국제 원자재 시장은 전체 지수의 방향보다는 품목별 가격 차별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식품가격뿐 아니라 에너지·비료 등 농업 투입재 가격 변동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음.

■ 참고문헌

유엔무역개발회의(U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2026), Global Trade Update (July/August 2026): Global trade continues to expand amid rising price pressures, UNCTAD/DITC/INF/2026/7, UN Trade and Development.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국제농업개발기금(International Fund for Agricultural Development, IFAD)·유니세프(UNICEF)·세계식량계획(World Food Programme, WFP)·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2026),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6: Understanding and addressing the high cost of a healthy diet, FAO.

〈보도자료·기관 발표자료〉

미국 농무부(U.S. Department of Agriculture, USDA)(2026. 6. 3.), “USDA Confirms Presence of New World Screwworm in the United States”.

_____(2026. 6. 3.), “USDA Expands Payment Limitation and Payment Eligibility Provisions for Farmers”.

_____(2026. 7. 8.), “USDA Celebrates One Year Anniversary of the Working Families Tax Cuts Act, Delivers Final ‘Farmers First’ Program Improvements”.

_____(2026. 8. 24.), “USDA Announces Harvest to Hallways Initiative to Invest in Child Nutrition Programs”.

미국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2026. 6. 18.), “Joint Statement from Ambassador Jamieson Greer and Mexican Secretary of Economy Marcelo Ebrard”.

_____(2026. 7. 1.), “Ambassador Greer Issues Statement on the USMCA Joint Review”.

_____(2026. 7. 15.), “USTR Section 301 Action on Brazil’s Unreasonable Acts, Policies, and Practices”.

_____(2026. 7. 23.), “USTR Takes Action in Forced Labor Section 301 Investigations”.

미국 보건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2026. 8. 24.), “HHS Joins USDA to Announce Harvest to Hallways Initiative to Invest in Child Nutrition Programs”.

미국 식품의약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2026. 6. 10.), “FDA Releases Report on Traceability Readiness Tabletop Exercises and Updated FAQs”.

- _____ (2026. 8. 11.), “FDA Finalizes Guidance for Ready-to-Eat Fresh-Cut Produce Operations under Preventive Controls for Human Food Rule”.
-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2026. 6. 24.~26.), “SPS Committee addresses record number of trade concerns, transparency and SPS mentoring”.
- _____ (2026. 7. 9.), “WTO members explore path forward on agricultural negotiations”.
- _____ (2026. 7. 31.), “Global goods trade resilient in the first quarter of 2026 despite war in Middle East”.
- 세계은행(World Bank)(2026. 8. 6.), “Commodity prices broadly unchanged in July - Pink Sheet”.
-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2026. 6. 15.), “Council and Parliament reach provisional deal on new rules for plant reproductive material”.
- _____ (2026. 6. 29.), “Council gives final green light to strengthen farmers’ position in the food supply chain”.
- _____ (2026. 7. 13.), “Council adopts targeted measures to support farmers facing high fertiliser costs”.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2026. 7. 7.), “Reducing the plant protein deficit of the European Union”.
- _____ (2026. 7. 17.), “Commission allocates €540 million in support to farmers facing the fertiliser and energy crisis arising from the Middle East crisis”.
- _____ (2026. 8. 28.), “The EU agri-food sector consolidates its position globally in the first half of 2026”.
- 유엔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2026. 7. 3.), “FAO Food Price Index edges down amid diverging commodity price movements”.
- _____ (2026. 8. 7.), “FAO Food Price Index edges up amid weather, energy and geopolitical concerns”.
- _____ (2026. 9. 4.), “Supply concerns drive FAO Food Price Index higher in August”.
- 일본 농림수산업성(農林水産省, MAFF)(2026. 7. 14.), “농림수산 연구 이노베이션 전략 2026 공표(農林水産研究イノベーション戦略2026を公表します)”.
- _____ (2026. 7. 28.), “새로운 신고제·정기보고 대상에 대하여(新たな届出制・定期報告の対象について)”.
- _____ (2026. 8. 4.), “2026년 1~6월(상반기) 농림수산물·식품 수출실적(「2026年1-6月(上半期)の農林水産物・食品の輸出実績」について)”.

- _____ (2026. 8. 7.), “2025년도 식량자급률 공표(令和7年度食料自給率を公表します)”.
- KATI농식품수출정보(2026. 3. 25.),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 개정(2026. 6. 1. 시행)”.
- _____ (2026. 8. 13.), “[중국] 고형음료 국가표준 2026버전 공표(2027. 8. 1. 시행)”.
- _____ (2026. 8. 14.), “[인도네시아] 할랄인증 관리체계 규정 초안 발표”.
- _____ (2026. 8. 17.), “[베트남]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 초안 주요 내용 및 수출업체 유의사항”.

〈법령·규정·표준: 추가 참고 자료〉

- 베트남 보건부(Bộ Y tế)(2026. 7. 27.), 「Dự thảo 1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 BPJPH)(2026), “Draft Decree of the Halal Product Assurance Organizing Agency (BPJPH) No. ... of 2026 on the Assessment of Halal Product Assurance System Implementation”, WTO TBT Notification G/TBT/N/IDN/188(2026.7.23.).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国家市场监督管理总局·国家标准化管理委员会)(2026. 7. 2.), 「GB/T 29602-2026 固体饮料质量要求」.
- 중국 해관총서(海关总署)(2025. 10. 14.), 「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海关总署令第280号).
- _____ (2026. 3. 18.), 「关于《中华人民共和国海关进口食品境外生产企业注册管理规定》实施相关事宜的公告」(海关总署公告2026年第27号).

